

제프리 니하우스 박사, 성경 신학, 3차 세션, 아담의 언약, 타락 이후

© 2024 Jeffrey Niehaus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성경 신학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제프리 니하우스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3, 타락 후의 아담의 언약입니다.

우리는 이제 창조 언약 문제로 돌아가지만, 타락과 그 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한 그 언약 하의 삶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 이 장에는 뱀의 도전, 인간의 실패, 그리고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뱀의 도전은 어떨까요? 글썄요, 그에 대해 우리가 읽은 첫 번째
내용은 그가 야생 동물보다 더 교활 했다는 것입니다 . 교활하다는 단어,
히브리어로 *arum*은 *naked*라는 단어와 동음이의어입니다. 둘은 똑같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 말장난이 의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 앞에서
, 그리고 서로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육체적, 영적 벌거벗음이라는 죄
없는 특성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뱀의 교활함 때문에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뱀은 무엇을 할까요? 글썄요, 그는 온 세상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악마 또는 사탄이라고 불리는 고대 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가 하는 일입니다. 그는 길을 잃게 하고, 거짓말을 통해
그렇게 하며, 예수께서는 그를 거짓말의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그는
속이는 죄로 장사합니다.

히브리서는 죄의 속임수로 마음을 굳게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죄란 무엇일까요? 물론 죄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로마서에서 죄에 대한 완벽한 정의를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닌 것은 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이 성경적으로 표현된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히브리서 11장에서 읽은 것 이상이지만, 그것과 일관성이 있지만, 우리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여기서 뱀이 하는 일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뱀이 와서 도전합니다. 그는 겔보기에 무해한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 글썄요, 하느님께서 정말로 정원의 어떤 나무에서도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고든 콘웰의 제 동료인 더그 스튜어트는 뱀에게 독일식 악센트를 주고, 하느님께서 정말로 뭐라고 하셨을까요? 이 과일을 먹지 마세요? 그것은 하느님의 말씀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는 뱀이 최초의 자유주의 학자, 최초의 고등 비평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질문은 무해해 보이지만, 가시가 돋친 질문입니다.

신이 정말 말씀하셨나요 ? 꽤 강조적입니다. 그는 신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글썄요, 그의 질문은 어때요? 동산에 있는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지 말아야 합니까? 이 구절 전체는 사실 신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다만 '아니오'라는 단어만 빼고요. 신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동산에 있는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을 수 있습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뱀이 그것을 뒤집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부정적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익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는 추가적인 암시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좋은 것, 즉 정원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거부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글썄요, 물론, 그 여자는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녀와 그녀의 남편은 사실 정원에 있는 나무에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녀가 창세기 2장에 따르면 주님께서 아담에게 이것을 말씀하신 후에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그녀에게 이걸 말했을 거야. 내 생각엔 가장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일 거야. 그래서 그녀는 충실하게 반복해. 그리고 나서 그녀는 더 대답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녀의 다음 진술을 신이 원래 말씀하신 것에 부당하게 덧붙인 것으로 본다.

그녀는 정원 한가운데 있는 나무에 대한 명령을 반복하면서, 우리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덧붙여, 만져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사실, 고전적인 견해는 제가 이 문제를 다루는 *Wind and Eve's Sin*이라는 출판물에 대한 책을 쓰고 있다는 견해입니다.

고대 해석자에서 현대 해석자에 이르기까지의 고전적 관점이 거의 보편적이기 때문에, 그 여인은 신이 말씀하신 것에 더하고 있으므로 이미 길을 잃고 있습니다. 제가 많은 것을 배운 저의 사랑하는 멘토, 메러디스 클라인이 이런 관점을 취했습니다.

학생 시절 그의 강의에 참석했을 때 이 말을 듣고, 글썄, 그럴 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럴 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믿음과 죄와 그들의 관계가 개입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신이 말씀하신 것에 더한다면, 그녀는 이미 죄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추가,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말씀을 하나님의 입에 넣는 것은 죄의 행위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못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도록 격려하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그것을 조금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살펴보고 더 많은 의견을 제시하세요. 그녀의 추가는 이전 서사의 간결한 성격의 결과로 가장 잘 이해됩니다.

따라서 창세기 2장은 하나님께서 금지된 나무를 만지는 것조차 금지하셨다고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죄의 상태에 있지 않고 아직 거짓말쟁이가 아닌 그 여자로부터 그 정보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진술은 이전 기록에 포함되지 않은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이제, 이 문제를 조금 더 다루어 보겠습니다. 그녀가 신이 말하지 않은 말을 신의 입에 넣는다면, 그녀는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즉, 그녀는 자동적으로 죄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글썄, 그녀가 아담이 그녀에게 한 말을 잘못 기억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녀가 사건을 강화하기 위해 덧붙였을 수도 있다고 말함으로써 변명할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중 하나라도 사실이라면, 그녀는 여전히 죄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신이 말하지 않은 것을 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닌 것은 죄입니다.

성경적으로 믿음은 신을 개종시키는 것입니다. 그의 존재와 행위를 개종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히브리어 동사의 의미입니다.

처음 나오는 것은 창세기 15장 6절인데, 문자 그대로 "아브라함, 하나님께 아멘, 주님께 아멘"이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그에게 의로움으로 인정했습니다. 히브리어로 아멘은 "그렇다"는 뜻입니다.

동사는, 제가 이 용법으로 번역할 방법은, 긍정하다, 그렇게 만들다, 그것이 그렇다고 소유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설교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누군가가 회중에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자가 어느 순간 무언가를 말합니다. 회중의 누군가가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 순간 그 사람은 설교자가 방금 한 말을 완전히 소유하고 받아들이고 동의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당신과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도달할 때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봅니다. 우리는 주장이 무엇인지 봅니다.

우리는 그가 한 일을 보고, 그가 우리를 위해 했다는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그 이상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악마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악마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그는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적어도 우리만큼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달리 그는 그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을 자신에게 전유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4:23에서 말했듯이, 믿음에서 나오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그런 이해에 따르면, 우리의 상태가 얼마나 완전히 절망적인지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것, 모든 나노초마다 하나님을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의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회개함으로써, 우리는 그분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돌려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하나님의 입에 말을 넣는 것은 정의상 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물론 바울은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매우 분명히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2장에서 그는 속은 여자가 죄인이 되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가 이 시점에서 뱀에게 대답할 때 이미 속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그저 질문에 대답하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그것이 아담이 그녀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고 말하는 일부 나이 많은 유대인 통역가들이 말했듯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는 그녀를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가 믿을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제한이 실제보다 더 무거운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그는 죄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습니다. 글썄요, 만약 그게 다 사실이라면, 그녀의 추가 내용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그리고 그 추가 내용은,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방금 사용한 간결한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의 섭리로 모세를 통해 이 성경을 주시고 정리하신 방법입니다.

그는 창세기 2:17에서 우리에게 약간의 정보를 줍니다. 그는 여자를 통해 더 많은 것을 줍니다. 그래서 그는 창세기 2에서 3인칭 서술을 통해 우리에게 약간의 정보를 줍니다. 그는 창세기 3에서 1인칭을 통해 더 많은 것을 줍니다. 이것은 창세기에서도 다시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12에서 아브람과 사라가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는 말하죠, 알아요? 당신은 예쁜 여자예요. 그들은 당신을 볼 거예요. 그들은 나를 죽이고 당신을 데려갈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내 자매라고 그들에게 말해. 우리는 나중에 그녀가 그의 이복 자매라는 것을 알게 돼. 그러니까, 전적으로 거짓말은 아니야.

하지만 아시다시피 그 목적은 오도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창세기 20장에서 그들은 아비멜렉과 그랄의 왕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에게 똑같은 일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그녀를 데려간다. 그는 아직 그녀와 관계를 맺지 않는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꿈에서 그에게 경고하신다.

당신은 그녀를 가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녀는 그의 아내니까요. 그리고 아비멜렉은 그 다음날 아브라함을 이렇게 비난합니다. 그리고, 왜 그런 짓을 했니? 알다시피, 우리는 큰 죄를 지었을 수도 있어요.

아브람이 말하길, 글썄,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어, 이곳에 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더구나, 우리가 어디를 가든, 우리가 어디를 가든, 나는 그녀에게 말했어, 이게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야. 네가 내 누이라고 말해.

글썄요, 그게 우리가 처음 알게 된 거예요. 몇 번이나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창세기 12장에서 우리는 3인칭 서사에서 그것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20장에서 우리는 정보를 추가하는 일인칭 설명을 얻습니다. 창세기의 또 다른 사례. 아브라함과 관련된 하나님의 모든 거래.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거래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6장 5절에서 이삭과 언약을 재확인하실 때, 그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내 모든 법과 요구 사항과 법령과 규례를 지켰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합니다.

글썄요, 그게 뭐였을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는 창세기 17장에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앞에서 행하고 흠이 없어라.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다른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나중에 모세 언약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이 무엇이었던 모세 언약에 더 많은 것이 추가되어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무엇이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당신은 이 3인칭 서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님 자신이 1인칭으로 당신에게 보충 자료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역사가 쓰여지는 방식이에요. 간결하죠.

그리고 이런 경우에 주님은 나중에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우연히도, 누가가 3인칭으로 보고한 사도행전의 바울의 다마스쿠스 길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2장과 26장에 있는 바울 자신의 기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 생각에 그 여자의 반응에 대한 가장 좋은 이해입니다. 그녀는 아직 죄에 빠지지 않았습시다. 그녀는 길을 잃지 않았습시다.

그녀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과장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저 진실을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그녀의 대답입니다. 글썄요, 뱀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글썄요, 그는 당신이 반드시 죽지는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지금 그저 간접적으로 문제를 언급하고 의심을 제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뻔뻔하게 말하며, 아니, 너는 죽지 않을 거야. 신이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이 아니야. 왜? 네가 그것을 먹으면 눈이 뜨이고, 신과 같이 되어, 문자 그대로 선과 악을 알게 될 거야.

글썄요, 뱀의 이 답변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그의 주소는 두 번째 복수형입니다. 복수형인 당신은 선과 악의 복수형인 아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You, 복수형, will not die, 등등. 그래서 이것은 여성의 남편을 포함시켜 매력을 더할 수 있고, 알다시피, 당신은 이렇게 합니다. 당신은 혼자일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남편도 할 수 있어요. 두 분 모두 이로부터 이득을 얻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그가 두 분 모두를 끌어내리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확실히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그는 두 분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있습니다. 또한 Elohim이라는 용어와 분사형 knowers가 있습니다. Elohim은 보통 이 구절, 이 진술에서 항상 God로 번역됩니다.

하지만 천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창세기 1장 26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천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천사는 인간을 창조하는 데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아마도 왕의 복수형이나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본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지, 천사의 형상을 직접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여기서 엘로힘은 천사를 포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연히도, 성경에서 엘로힘이 천사와 하나님과 천사를 언급하는 곳이 한 군데 있는데, 바로 창세기 35장 7절입니다. 야곱의 경험에 대한 성찰이 있는 곳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천사, 사다리와 그 외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창세기 35장 7절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곳이라고 나와 있지만, 히브리어에서는 엘로힘이 자신을 나타내신 곳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천사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수수께끼 같은 이유에서인지, 왜 번역가들이 그렇게 번역하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엘로힘은 당신이 하나님과 천사들과 같을 것이라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천상의 존재들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는 자에 대한 언급도 모호해집니다. 그것은 당신이 선과 악을 아는 자, 엘로힘, 신, 천사와 같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 신과 천사와 마찬가지로 선과 악을 아는 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은 어느 경우든 거의 같습니다.

메리스무스 라고 불리는 것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 사실,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신과 같을 것이고, 전지전능할 것입니다. 글썄요, 그럼 결과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결과가 무엇인지 압니다.

한 구절에서, 그 여인이 나무의 열매가 좋고 이런저런 것을 보고 탐스러워서 그것을 따서 먹었습니다. 또한 그녀와 함께 있던 남편에게도 주었고, 그는 그것을 먹었습니다. 좋아요, 여기서도 이야기할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초기 진술들은 당신에게 많은 것을 말해주지만 때로는 당신이 그들에게 말하고 싶은 모든 것을 말해주지 않는다는 문제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괄호 안에 뭔가를 추가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 그 여성이 정말 쉽게 넘어가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뱀은 그녀와 잠깐 대화를 나누었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CS 루이스를 읽는 것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특히 이 문제와 다른 문제에 관해서요. 신학교에서 제 동료인 데이비드 웰스는 CS 루이스를 13번째 사도라고 언급했는데, 제 생각에는 약간 과장된 표현인 듯하고, 물론 그는 약간 농담을 하긴 했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루이스는 많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주 3부작을 썼는데, 그 중 두 번째 소설은 페렐란트라 입니다 . 그 소설에서 당신은 금성의 아담과 이브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는 지구 물리학자의 몸에 있는 사탄이 있는데, 그는 그곳을 여행했고, 그는 그 여자를 유혹하려고 합니다.

이 소설에서 금성은 물의 행성입니다. 물론, 지금은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지만, 금성은 물의 행성이고, 떠다니는 섬이 많고, 본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신은 금성의 아담과 이브에게 하지 말라고 한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본토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간 물리학자의 몸 속에 있는 사탄은 신이 실제로 그녀가 본토로 가기를 원한다고 설득하려고 하지만, 그는 그녀가 불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그녀의 성장의 한 단계가 될 것입니다. 그녀에게 좋을 것이고, 그녀의 남편에게도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를 압도하려고 며칠이고 며칠을 보냅니다. 그는 거의 성공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뭔가를 드러내는 것 같아요.

이것은 창세기 3장의 매우 간결한 서사입니다. 우리는 뱀이 여자와 얼마나 오랫동안 이야기했는지 모릅니다. 그가 그녀를 이 지경까지 데려오는 데 얼마나 걸렸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그것이 서사의 간결한 특성입니다.

좋아요, 그럼,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읽은 타락에 대한 이 진술은 어떨까요? 글썄요, 여자는 나무가 좋다는 것을 보고 그것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간의 죄는 요한이 나중에 눈의 정욕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죄는 대상에 있지 않고 여자와 남자가 그것을 가져가도록 만든 불순종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단어 시퀀스는 나중에 매우 주목할 만한 두 가지 사례에서 나타납니다. 무언가가 좋다는 것을 보고 그것을 취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서, 우리가 나중에 이야기할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들이 누구였을지에 대한 다양한 학파의 생각이지만, 역사를 통틀어 대다수의 견해는 그들이 타락한 천사였다는 것이었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였든, 그들은 사람의 딸들이 좋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찾을 수 있는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보통 아름답다고 번역됩니다. 그들은 결혼했지만, 다시 말하지만, 그들은 창세기 3장에서 사용된 것과 같은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선택한 모든 것을 취했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좋다는 것을 보고, 당신은 그것을 취합니다.

그리고 이 신의 아들들이 누구였든, 그들은 나쁜 짓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건 좋은 일이 아닙니다. 창세기 7장, 아주 분명하게, 아간, 같은 종류의 일이죠.

그는 여리고에서 아름다운 또는 좋은, 창세기 3장과 같은 형용사인 바빌로니아의 옷과 은과 금을 보고 그것을 가져갔다고 고백합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예를 통해 이것은 분명히 죄악적인 빼앗음을 묘사하는 구약성경 방식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 있는 여자의 경우,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금지되었고, 그녀는 그것을 가져감으로써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글쎄요, 이 모든 일이 일어났을 때 그녀가 혼자였을까요? 두 번째 문장은 우리에게 진정한 모호함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또한 그녀의 남편에게 약간을 주었습니다. NIV가 번역한 대로, 그리고 다른 번역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번역한 대로, 그녀와 함께 있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글쎄요, 영국의 시인 존 밀턴은 그의 서사시인 잃어버린 낙원에서 인간에 대한 신의 방식을 정당화하려고 선택하거나 추구했는데, 이는 어려운 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는 자신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그는 뱀을 유혹을 시도하기 전에 혼자가 될 때까지 교활하게 기다리는 뱀으로 묘사했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관점이었으며, 군사적으로 적군을 공격할 때 방어에 약한 고리를 쪼고, 갑옷의 약한 틈을 쪼고, 거기로 침투하려고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제, 그것은 사실일 수도 있고,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본문에서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한 번, 그저 문제일 뿐입니다. 증거의 한계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사에서는 그녀가 그녀와 함께 있던 남편에게 주었다고 하지만, 히브리어는 단순히 그녀와 함께 있던 그녀의 남편에게 주었다고 말합니다.

이제 그것은 즉각적인 존재를 나타낼 수 있지만,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장의 후반부에서 아담은 이브를 당신이 여기 나와 함께 두신 여자라고 부르는데, 이는 그의 조력자로서 여자를 창조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히브리어는 문자 그대로 당신이 주었거나 나와 함께 두신 여자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서 그녀가 남편에게 그녀와 함께 주었다는 전치사는 히브리어로 전치사 *im* 입니다. 그 후의 전치사인 당신이 여기 나와 함께 두신 여자는 *imad* 인데 , 이는 실제로 두 개의 전치사가 하나로 합쳐진 것입니다. *im*은 *with*를 의미하고 *ad*는 방향성이 있으므로 당신이 여기 나와 함께 두신 여자를 가까운 동반자로 암시합니다.

*zugesellt*를 사용하여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 당신은 그녀를 여기 내 동반자로 두었습니다. 앞서 제롬은 라틴어 단어 *socia*를 사용했는데 , 이 단어 역시 동반자, 내 사회의 누군가입니다. 따라서 후자의 경우를 먼저 살펴보면, 그것은 훨씬 더 가까운 접촉을 의미하지만, 우리는 아담이 주님께 그녀가 매초 나와 함께 있다고 말했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녀를 여기 내 옆에 두었고, 그녀는 매 순간 나와 함께 있었습니다. 뱀이 오기 전에 그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정원에 있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들이 다른 시간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는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정원에서 다른 일을 했다는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제 아내가 저와 함께 산다고 말씀드립니다. 글썄요, 제 아내는 지금 살고 있나요? 네 .

그녀가 지금 나와 함께 있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전치사에 대해 신비로운 것은 없습니다. 다른 언어의 전치사이지만 기본적으로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항상 그와 함께 있었다는 것은 반드시 아니고, 현재의 경우, 그가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을 때 그녀와 함께 있었다는 것은 반드시 아닙니다. 좋아요, 그럼 무엇이 가능할까요? 글썄요, 물론, 그가 바로 그 순간에 그녀와 함께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 그가 그 후에 그녀와 함께 있었고, 그녀가 그에게 과일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가 일반적으로 그녀와 함께 있었지만, 그녀가 유혹을 받았을 때는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다시 말해서, 그녀가 나중에 그에게 과일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가능성은, 여기에 나열하지는 않았지만, 제 첫 번째 권에 나와 있는데, 그녀가 그것을 그에게 주었고 그가 그것을 가져갔을 때, 그는 그녀와 함께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범죄의 공범자였죠. 그래서, 그리고 이것은 상황적인 것, 상황적 증거에 가깝지만, 주님이 와서 그들을 꾸짖을 때, 그는 그들이 한 일이나 하지 않은 일에 대해 꽤 분명하게 꾸짖으셨고, 아담이 그저 서서 아내가 언약 불순종이나 죄에 빠져드는 것을 지켜보았다고 꾸짖지 않으셨고, 당신은 그것이 꽤 큰 문제라고 생각할 것이고, 그것이 문제였다면 그는 그것을 언급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실은, 글썄요, 당신은 아내의 목소리에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당신은 그녀가 하라고 한 대로 했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다시, 성경에서 나중에 아담은 그런 혐의로 고소당하거나, 책망당하거나, 꾸지람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지속 가능한 입장이 아닙니다.

왜 어떤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보기를 원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법정에서 이런 종류의 증거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학문에서도 성립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타락의 결과는 어떨까요? 인간 관계에 대한 결과입니다. 글썄요, 저는 아담의 반응의 본질이 오랫동안 이해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주님께, 당신이 여기 저와 함께 두신 여자가 나무 열매를 제게 주었고,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글썄, 그게 무슨 뜻일까? 심지어, 알겠지? 이 과일이 어디서 왔는지 몰랐는데, 가져갔고,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봐. 하지만 그보다 더, 그는 기본적으로 신을 비난하고 있어. 그는, 알겠지? 당신이 나에게 이 여자를 주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봐.

마치 그가 그저 무고한 사람인 것처럼, 아니면 그가 빠진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처럼. 그것은 확실히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꽤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현실은, 결국 그는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가 과일을 먹었기 때문에 선택을 했다는 것을 압니다. 글썄요, 그 여자가 신에게 한 반응은 어땠을까요? 뱀이 나를 속였고, 나는 그것을 먹었습니다.

이제, 그게 훨씬 더 나은 대답이에요. 정확히 그게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그녀가 변명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 글썄요, 알다시피, 어떻게 된 일인지 저는 그냥 다 합치지 못했어요.

뱀이 나를 속였다. 바울도 나중에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는 그녀가 사실 속았다고 말한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 조금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아시다시피, 우리는 죄의 기만에 마음을 굳게 하지 말라고 들었습니다. 죄의 본질은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 외에도 하나님을 고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죄의 본질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기만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과 저는 어쨌든 죄로 이끌리고, 우리 자신의 생각이 우리를 죄로 이끌고, 어떤 면에서는 죄가 우리에게 좋게 보여야 합니다.

뭔가 좋은 것을 가져다주는 것처럼 보여야 합니다. 알다시피, 우리는 그것이 과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 입 속의 재로 밝혀집니다.

하지만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좋은 것을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원수가 우리를 유혹한다면, 나쁜 것을 좋게 보이게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만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변명하지는 않지만, 나는 그것이 죄에 대한 무언가를 설명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는 그것을 좋게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글쎄요, 여기서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가 있습니다. 즉, 그 여인이 뱀의 토라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기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합니다.

그는 무언가를 하라고 말하고, 그에 대한 이유를 말하고, 그녀는 그것을 합니다.

그 남자는 그녀의 토라를 따른다. 그는 아내의 목소리에 주의를 기울인다. 그는 그녀가 하라고 하는 대로 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뱀을 사실상 그녀의 종주권자로 대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의 토라, 그의 율법, 그의 조언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내의 말을 대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연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실, 당신은 당신의 아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것은 적어도 저에게는 아담이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뱀이 그녀를 유혹했을 때 거기에 없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의 아내로부터 이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가 하라고 한 것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두 경우 모두, 그리고 이 히브리어 관용어, 히브리어로 음성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훨씬 나중에 나타나는 것이고, 이것이 언약적 관용어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누군가의 음성에 주의를 기울일 때, 당신은 그들을 당신보다 권위 있는 사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주님이고, 이스라엘은 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글썄요, 이 경우 아담은 그의 아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그녀를 그의 입법자처럼 대합니다.

이 관용어는 여자와 관련하여 사용되지 않지만, 그녀는 분명히 같은 일을 합니다. 그래서, 둘 다 효과적으로 이것을 합니다. 둘 다 효과적으로 뱀의 조언을 따릅니다.

그녀 직접, 그리고 그녀를 통해서. 그것은 그녀를 통해서 아담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효과적으로 뱀을 대체 종주권자로 삼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토라가 아니라 그의 토라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토라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과일을 삼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합니까? 그것은 그를, 그리고 그의 천사들을 세상에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가 소문자 s로 된 이 세상의 종주권자가 되는 이유입니다.

또는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말했듯이, 그는 소문자 g로 시작하는 이 세상의 신이 됩니다. 물론 신은 여전히 대문자 S 종주국입니다. 그는 여전히 대문자 G로 시작하는 세상의 신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의 범법의 법적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들이 한 일 때문에 우리 모두가 갇힌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는 여전히 모두 죄를 지었고 주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 배경이에요. 이것이 이런 일로 이어졌어요.

그리고 그의 지혜로, 신은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시고 주님이 마침내 돌아와서 모든 것을 끝내실 때까지 오랫동안 계속되게 하십니다. 글썄요, 인간의 최악은, 우리가 그 상태에 있고 이 세상의 작은 g 신 아래

있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은 신을 믿든 악마를 믿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신과 우리의 종주권을 위해 효과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악마, 사탄이 여전히 신의 허락 하에 전 세계를 다스리는 소문자 g 신이라는 사실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그 명령을 수행할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여전히 열매를 맺고 번식하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는 항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리고 죄스러운 방식으로 사물을 정복하여 지구를 손상시키고, 심지어 파괴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계시록 11장 18절을 썼을 때, 지구를 파괴한 자들을 파괴할 때가 왔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려웠을 겁니다.

요한의 시대 에는 주변을 둘러보며 인간이 지구를 파괴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 하지만 우리는 지금 그것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이사야 24장에서 예고되었는데, 그것은 종말론적 시로, 우리는 지구가 주민들 아래에서 오염되어 있다는 것을 읽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때때로 문화적 명령이라고 불리는 통치와 정복을 계속하지만, 죄악적인 방식으로, 영과 맞지 않게, 땅을 파괴합니다. 글썄요, 이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그는 오셔서 심판으로 시작합니다. 우연히도, 우리는 언약 중재자 선지자와 언약 소송 선지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담은 언약 소송 언약 중재자 선지자라고 우리는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 아담 언약을 중재합니다. 모세 언약 하에서 언약 소송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미가엘, 소선지자입니다 . 또한 미가야, 엘리야, 엘리사처럼 글을 쓰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언약이 깨졌고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변에 있는 유일한 인간은 언약을 어긴 가신들뿐입니다. 사실, 그들 중 한 명, 아담이라고 할까요, 그는 언약의 중재자였습니다. 그러니 언약 소송이 제기된다면, 주님이 제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가져와야 한다. 그는 자신에게 진실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한다.

그래서 주님 자신이 첫 번째 언약 소송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이 여기 있는 것이 심판으로 오는 아들 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는 종말론적으로 심판으로 올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이것을 언급하겠습니다.

나중에 더 자세히 다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에 대해 여러 곳에서 썼습니다. 창세기 3장, 8장, 그 이하에서 일반적으로 번역된 것은 주님께서 시원한 날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의 언어인 아카드어에서 나온 성경 외적 증거에 따르면, 히브리어로 '요므'라는 단어는 속죄의 날인 욥 키푸르와 같은 단어라는 주장이 타당합니다.

또 다른 히브리어 Yom이 있는데, 폭풍을 뜻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실제로 Holladay's Hebrew 사전에서 이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한 번역은 낮의 시원한 곳이 아니라 폭풍의 바람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2,000년 이상 동안 매우 독특한 히브리어 표현으로 여겨져 온 것을 해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루의 바람, 하루의 시원함, 그런 것들이, 제 생각에,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가장 좋은 추측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 생각에, 성경 외의 동족어 증거가 무언가를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잠시 멈추겠습니다. 주님이 첫 번째 폭풍, 신현으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타락 후에 나타나는 방식입니다. 사람들은 타락 후에 두려워합니다. 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타락하기 전에 신은 남자와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타락 후에 그는 정원에 나타나셨습니다.

아담은 두려워합니다. 그는 벌거벗었기 때문에 두려워했지만, 칼빈이 제안했듯이, 여기에는 육체적 벌거벗음 이상의 것이 있을 것입니다. 영적인 두려움이 있는데, 저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연히도, 그것은 계속되는 문제입니다. 구약에서 주님이 그의 영광의 어떤 것으로 나타날 때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수의 성육신,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나를 보는 자는 아버지를 본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가 기적을 행할 때 그의 영광을 보지만 그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파트모스에서 요한에게 영광스럽게 나타났을 때, 저는 예수님과 가까웠던 사랑하는 제자였던 요한이 그의 품에 기대어 있었고 그때 그 안에 성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그의 영광으로 나타났을 때 그는 죽은 사람처럼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이 우리 앞에 이런 식으로 나타나신다면, 우리도 똑같이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함에 두려움으로 반응하는 것은 여전히 육체의 죄성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권능의 문제가 아니라 거룩함의 문제입니다. 어쨌든, 창세기 3장에서 주님은 첫 번째 언약 소송을 제기하시고, 저주의 첫 번째 부분을 제기하십니다.

그는 뱀을 먼저 저주합니다. 뱀은 이 모든 것의 선동자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당신은 모든 가축과 모든 야생 동물보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글쎄요, 이것은 동물들도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나타내며, 모든 창조물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나중에 말했듯이, 창조물은 좌절에 복종했습니다. 창조물은 스스로의 선택이 아니라, 그것을 복종시킨 분, 곧 하나님의 뜻에 의해, 창조물 자체가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로 인도되기를 바라는 소망으로, 그것은 확실히 일어날 것입니다.

글쎄요, 저주의 두 번째 부분은 뱀이 그의 배로 기어다니고 그의 평생 동안 흙을 먹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뱀의 모습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나중에 요한 계시록 12:9에서 그는 악마와 사탄이라고 불리는 고대 뱀, 큰 용이라고 언급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뱀은 악마인 셈인데, 그가 뱀을 소유하고 사용했는지, 아니면 누가 알겠는지, 그것은 미스터리입니다. 하지만 물리적으로 땅 위를 기어다니는 뱀은 뱀에 대한 심판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밀튼은 뱀이 꼬리로 균형을 잡고, 웅크리고, 여자에게 말을 걸 수 있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그는 뱀이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이 여자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든다고 매우 영리하게 제안하는데, 뱀이 “이봐, 알았지? 내가 그 과일을 먹었어. 이제 말할 수 있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와, 이 뱀에게 그게 효과가 있다면, 나에게는 뭐가 효과가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영리한 내용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이 그의 시이고, 그는 그렇게 할 모든 권리가 있었고,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 방식이든 아니든, 그것은 훌륭한 독서입니다.

그리고, 하지만 그것이 뱀에 대한 저주입니다. 글쎄요, 저주의 세 번째 부분은, 하지만, 프로테반젤리움 이라고 불리는 것, 복음의 첫 번째 진술입니다. 나는 당신과 여자 사이에, 그리고 당신의 후손과 그녀의 후손 사이에 적의를 두겠습니다.

그는 당신의 머리를 부술 것입니다. 당신은 그의 발꿈치를 때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사용된 동사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언급하겠습니다. 여기의 crush와 strike라는 번역은 두 개의 다른 동사가 쓰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지만, 사실 히브리어로는 같은 동사이고, 그래서 그것은 두 경우 모두 일종의 치명타가 될 것이고 아들은 실제로 죽는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내놓지만, 물론 그는 그것을 다시 취할 권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 모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14에서도 이 승리를 나타냅니다. 자녀들이 혈육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도 그들의 인간성을 공유하셨으니, 곧 예수는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생각, 이 갈등, 그리고 아들의 이 우월성이 시편 110편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묘사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저는 1권에서도 이에 대해 썼습니다.

이 시편은 오랫동안 메시아적 시편으로 이해되어 왔으며, 여기서는 아들에 대해,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민족들을 네 발판으로 삼을 것이다. 그는 민족들을 심판하고 죽은 자들을 쌓을 것이다. 그리고 아들에 대해, 그리고 여기서도 NIV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일반적인 번역이 있는데, 온 세상의 통치자들을 무너뜨릴 것이다. 사실 이 부분은 히브리어로는 그가 큰 땅 위에 머리를 부술 것이라라고 읽습니다. 글썄요, 땅 위에 있는 머리가 짓밟힐 것은 이 세상의 신, 고린도후서 4:4에 따르면 사탄, 마귀, 메시아가 실제로 그의 머리를 짓밟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짓밟는 데 사용된 동사는 히브리어로 machatz 이고, 창세기 3장에서 사용된 동사는 shuph 입니다. 그것들은 같은 의미입니다. 동사가 다르다는 사실은 이 주장에 전혀 차이를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고대 근동의 일반적인 표현 방식에서 다른 동사가 때때로 사용될 수 있지만, 그 표현이 기본적으로 같은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저는 그것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시편 110편은 실제로

메시아적이며, 끝 부분에서 실제로 인식되지 않았다고 생각되는 무언가를 표현하지만, 여자의 씨의 승리와 이 예언의 성취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남자와 여자에 대한 저주는 어떻습니까? 여기서도 일어나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글쎄요, 여자는 아이를 낳는데 더 많은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이 재미없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실제로 아이를 낳는 것이 때때로 어머니의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한 좋은 점은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주님께서 그들이 행한 일에 대해 심판을 내리시지만, 그날은 그들을 죽이지 않고, 그들을 끝내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즉시 나타냅니다. 우연히도 이 앞 장의 맥락에서 그 날이 24시간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당신이 이렇게 하는 날,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철회하거나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긴 기간을 의미하는 하루입니다. 창조 기록의 요약조차도 이것이 주님이 그것들을 만든 날에 대한 기록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당신은 이미 6일을 보냈으므로 그 날은 그 용어로 다른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주님은 고통스러운 노동과 함께 할 것이고, 이 다른 저주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창세기 3:16에서 읽은 다른 저주가 있습니다. 당신의 욕망은 남편을 향할 것이지만, 그는 당신을 다스릴 것입니다. 욕망이라는 용어는 창세기 4장과 아가서 7장에 나타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여자의 욕망은 남편을 향할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서 죄의 욕망은 카인을 향한 것입니다. 아가서에서 연인의 욕망, 이 경우 남자의 욕망은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것입니다. 이 용어의 맛을 가장 잘 이해하는 것은 친밀감을 향한 욕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해지고 있을까요? 글쎄요, 여자는 남편과의 친밀감을 원할 것이고, 우리는 타락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약간의 무질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은 건강하고 균형 잡힌 것보다 더 많은 친밀감을 원하거나 더 강력하게 원할 것이고, 그러나 다른 부분은 남편이 그녀를 지배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번역하고 싶은 방식은 그녀를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시 말해서, 불균형한 본질을 더 많이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그가 타락하기 전에 그녀의 머리가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가 그랬든 아니든, 당신은 이것으로 거기까지 갈 수 없지만, 어쨌든, 그녀에게는 여기 규칙이 있을 것이고, 그것은 심지어 통제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지나칠 것입니다. 제 아내 매기가 저에게 이 표현을 말했습니다.

그녀가 몇 년 전에 어디서 그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녀는 여성은 만족할 줄 모르고 남성은 둔하다고 말했는데, 정확히 같은 말은 아니지만,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아마도 전에 있었을 특성과 관련이 있는 특성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나치게요. 건강하지 않을 겁니다.

여자를 다스리는 동사는 히브리어 동사 *mashal* 입니다 . 왕의 통치에 사용됩니다. 창세기 1장에서 낮과 밤을 다스리는 빛에 사용됩니다.

창세기 4장에서 카인은 죄를 다스릴 의무가 있습니다. 동물을 다스리는 남자와 여자에 대해 다른 동사가 사용되었지만, 둘 다 왕의 통치에 사용되었으므로, 저는 그 언어적 차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어차피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용례, 이후의 용례에서, 우리는 아담이 왕의 방식으로 그녀를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지만, 앞서 말했듯이, 이것은 이전에 동등한 권위를 상실한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5장의 용어를 사용하여, 그는 전에 그녀의 머리였을 수 있지만, 그녀를 통제하지는 않았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이 초기 자료는 이 모든 것을 매우, 매우 모호하게 남겨두고, 그래서 저는 당신이 여기서 사용된 용어를 근거로 결혼 관계의 본질에 대한 논쟁을 하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영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타락 이후와 영을 주시기

전보다 더 나아져야 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글썄요, 우리가 여기서 읽을 때 땅에 저주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세상을 다스리면서 일해야 했던 땅은 저주를 받았고, 그의 아내도 이 일을 해야 했습니다. 이제 저항이 생길 것이고, 그 결과 가시와 엉겅퀴가 생겨 고통스러운 노동이 생길 것이고, 아담 자신도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가 취해진 흙입니다. 그래서, 이 저주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보면,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력의 장애에 대한 판단이 있고, 획득하거나 암시된 권한의 감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뱀의 노력의 장애는 밭입니다. 그는 밭의 모든 짐승 중에서 가장 영리합니다 .

그는 배로 기어간다. 획득되거나 암시된 권한의 감소, 나는 획득되었고 그의 경우에 적용되었기 때문에 획득되었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는 방금 소문자 G로 이 세상의 신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의 머리는 으깨질 것이다. 적어도 여성의 노력 분야 중 하나는 임신인데, 그것은 위태로워지고 어려워질 것이다.

그 남자는 땅과 땅 등을 다스리는 것으로 여겨졌지만, 지금은 저항을 낳을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경우에 하나님의 접근 방식은 그 사람의 특성이나 주요 노력 분야에서 무익함이나 좌절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는 각 사람에게 권위의 반전이나 감소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저주는 구약성경에서 나중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Gordon Conwell의 동료인 Stuart 박사는 이것을 허무의 저주라고 적절하게 불렀습니다. 그는 Exodus에 대한 해설에서 이에 대해 꽤 많이 썼는데, Exodus에 대한 좋은 해설을 찾고 있다면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매우 철저합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에서, 주님은 저주, 혼란, 책망, 그리고 당신이 손을 대는 모든 것을 당신에게 보내어

당신이 멸망하고 갑자기 파멸될 때까지 당신이 그를 버린 악행 때문에 당신은 하는 모든 일에 실패할 것입니다.

날마다 , 당신은 억압받고 약탈당할 것이고, 당신을 구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거기엔 꽤나 명백한 무익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에서 조금 후에, 사실 단 한 구절 뒤에, 그것은 매우 분명하게 표현됩니다.

너는 여자와 결혼하기로 맹세하였지만 다른 사람이 그녀를 빼앗아 황폐하게 할 것이다. 너는 집을 짓겠지만 거기에서 살지 못할 것이다. 너는 포도원을 심겠지만 그 열매를 맛보지도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본보기에 반하여 창세기 3장은 분명해진다. 당신의 욕망은 당신의 남편을 향할 것이지만, 그는 당신을 지배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허무한 저주이다.

관계에는 그런 무익함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원래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글쎄요, 타락 후 아담 언약 하의 삶을 더 살펴보면, 카인과 비선출된 혈통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고전적 사고방식은, 확실히 그것이 설정된 방식인 듯합니다. 선출된 선한 사람들의 혈통이 있는데, 그들은 아담을 거쳐 셋의 후손이고, 셋과 그들의 후손, 그리고 카인과 그의 후손입니다. 매우 흥미롭게도 도시와 기술의 발전에 대해 읽은 것은 카인의 혈통입니다.

그러니까, 카인은 도시를 건설한 첫 번째 사람입니다. 카인의 아들 야발은 천막에서 살면서 가축을 키우므로, 가축 사육의 시작인 듯합니다. 그의 동생 유발은 악기를 사용한 음악의 시작입니다.

그들의 이복형제인 투발 케인은 청동과 철로 도구를 만든다. 그래서 호모 파베르는 다시 작은 라틴인 제작자가 되었다. 흥미롭게도, 이런 것들을 생각해 낸 것은 타락한 혈통인 듯하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도시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조심하는 것을 의미하는 어근에서 유래했습니다. 아람어에서 유사한 어근은 복수형으로 천사를 뜻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들은 조심하는 자라고 불린다. 그들은 잠을 자지 않는다. 그들은 항상 조심한다.

도시에 대한 아이디어는 사람들이 감시한다는 것입니다. 즉, 벽이 있고, 감시자가 있습니다. 그 당시 도시는 안전을 위해 지어졌습니다.

무슨 말인가? 카인은 도시를 짓는다. 그는 불안함을 느낀다. 우리는 그가 불안함을 안다.

그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나를 여기서 쫓아내고 있습니다. 나를 찾는 사람은 나를 죽일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것을 처리할 것입니다.

그는 불안함을 느낀다. 그는 도시를 건설한다. 그의 자손은 이 기술들을 개발했다.

은 우리가 스스로를 보호하고 돌보는 방법을 알아낼 것이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우리는 삶을 흥미롭고 즐겁게 만드는 것들을 발명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공통의 은혜 아래에서 생산됩니다.

신의 도움 없이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는 iPhone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악마에게 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기술을 생산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신이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것은 불안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위험은 우리 스스로 힘과 역량을 개발하고 신이 필요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문화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로 가는 초기 시절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여기에는 또한 많은 자존심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라멕에서 봅니다. 그는 두 여자와 결혼한 첫 번째 사람입니다. 라멕의 노래를 그렇게 부른다면, 저는 그것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지만, 그 노래가 히브리어 시적 관습을 여기는 방식이 있는데, 이는 제가 라멕 자신이 규칙을 여기는 사람이라고 시적으로 믿는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입니다.

그것은 그가 한 명 이상의 아내를 취한 것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는 또한 이 시에서 하나님께서 카인이 죽으면 일곱 배로 복수하겠다고 약속하셨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심지어 소년에게라도 상처를 입으면, 나는 77배로 복수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곱 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라멕은 그것이 신이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더 심하게 할 것입니다. 꽤나 터무니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 구절에 대해 설교를 한다면, 또는 마태복음 18:21, 22에 대한 이 구절에 대해 설교를 한다면, 두 구절을 연결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와서, 형제가 나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일곱 번, 일곱 번인 것 같지만, 그것은 완전함의 숫자가 맞죠? 창조의 일곱 날, 등등. 안식일은 일곱째 날, 등등.

예수는 77번이나 아니,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카인에 대한 분명한 암시입니다. 반면에 카인의 영, 즉 신에 반대하는 영은 77번이나 복수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77번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명백한 암시이며 좋은 예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것이 카인의 혈통에 따른 삶이고,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그래서 죄가 증가하고, 우리는 창세기 6장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땅에서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을 때, 그들에게 딸들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들의 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앞서 언급했듯이, 그 단어는 토브, 선하고, 그들은 결혼했습니다. 우리가 앞서 언급했듯이, 그 단어는 취해졌다는 것이고, 나중에 디나의 강간을 언급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의미할 필요는 없지만, 그들은 그들이 선택한 사람들을 데려갔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영은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 영은 영원히 사람의 삶을 지속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날은 이제 120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그것이 전개되는 것을 본다고 생각합니다. 때때로 140년을 산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드문 일이지만 120년은 거의 상한선입니다. 네피림은 그 당시에 지상에 있었고 그 후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서 자녀를 낳았을 때, 그들은 고대의 영웅이었고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구절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구절들을 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은 땅에서 사람들의 사악함이 얼마나 큰지 보셨습니다. 그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성향은 항상 악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땅에 사람을 만든 것을 슬퍼하셨고, 그의 마음은 고통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생각하지 말자, 좋아요, 여기서 주님이 갑자기 놀라서, 뭐라고? 그들이 이렇게 나빠졌어? 내가 그들을 만든 것이 너무 미안합니다.

저는 우리가 우리 본성, 우리 존재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나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알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것을 하는 것이 옳고, 나쁜 결과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한 것을 슬퍼할 수 있으며, 나쁜 결과를 취소하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것이 가능할 만큼 복잡하고, 저는 그것이 확실히 신에게도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감정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그가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으며, 그는 일이 그가 의도한 대로 진행되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심판을 내립니다.

저는 이 판결을 내릴 겁니다. 저는 그것들을 없앨 겁니다. 글썄요, 여기 용어들은 어때요? 그렇게 명확하지 않은 용어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중 일부는 꽤 명확하다고 생각하지만, 전부 그렇게 명확하지는 않고, 어떤 것들은 전혀 명확하지 않고 이 구절에서 정리할 수 없습니다.

신의 아들들, Bnei Elohim. 이에 대한 세 가지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신의 아들들, 타락한 천사 해석은 우리가 시간을 보낼 해석인데, 역사적으로 거의 보편적으로 확인된 해석이지만 현대인들은 이에 대해 약간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다른 곳에서는 그 용어가 천사에게만 사용됩니다. 물론 창세기 6장은 예외일 수 있지만, 이것은 단지 여기서 데이터를 수집한 것입니다. 칠십인역, 칠십인역은 이것을 신의 천사로 번역합니다.

타르굼, 아람어 번역은 당신이 그것을 그렇게 부르고 싶다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는 심지어 우리에게 그들의 이름까지 알려줍니다. 그래서 타르굼은 때때로 약간 상상력이 풍부해집니다.

창세기 6장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들의 딸들 사이에 대조를 설정한 듯합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학자인 폰 라트는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믿지 않지만, 여기에는 분명히 대조가 있다고 말합니다. 의도적인 것입니다.

신의 아들들은 천상의 존재이고, 인간의 딸들은 인간입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의 일부 자료에는 유사한 구절이 있습니다. 글썄요, 이건 어떨까요? 천사가 와서 인간 여성과 성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천사가 특정한 육체적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창세기 18장에서 남자로 등장합니다. 거기에는 아브람의 천막 앞에 세 남자가 등장합니다.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그들 중 한 명은 주님입니다.

그 중 두 명은 소돔과 고모라의 다가올 심판을 롯에게 경고하기 위해 떠나는 천사입니다. 그 두 명은 떠날 때 롯이 준 것을 먹습니다. 사실 주님과 천사들은 아브라함이 준 것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음식을 먹는 것과 같은 육체적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시편 78편은 하늘의 음식을 권세 있는 자의 빵이라고 언급하지만, 결국 그것은 시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것을 많이 만들지 않는다고 확신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남자들이 우리가 천사라고 알고 있는 이 남자들을 볼 때, 도시가 스스로 비워지기를 원한다는 점은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젊은이와 노인을 막론하고 모든 남자들이 섹스를 하러 옵니다. 그들은 그들을 알고 싶어합니다.

그들은 그들과 성관계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남자처럼 보이고 성적 욕망의 대상인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의 수수께끼 같은 구절은 남자가 여자를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해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 때문에 머리에 권위의 상징을 가져야 합니다.

글쎄요, 무슨 뜻일까요? 만약 여성이 머리에 권위의 상징을 써야 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천사를 화나게 하고 싶지 않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권위의 상징이 여성들이 잡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어 천사들이 넘어져 그들을 잡으려고 하지 않도록 하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전혀 알 수 없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살펴볼 만한 구절인 것 같습니다.

신약성경 구절들은 이런 의미로 창세기 6장을 언급하는 듯합니다. 베드로후서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지옥으로 보내어 어두운 지하감옥에 가두어 심판을 받게 하셨다면, 이는 흥미로운 개념입니다. 예수께서 모인 귀신들린 자들을 쫓아내실 때, 그들이 예수님께 우리를 심연으로 보내지 마시기를 간청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것일 수 있습니다.

이제, 주변에 많은 악마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악마를 가진 사람들에게 사역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에서도 디모데에게 교회에서 악마에 대한 교리에 대해 경고합니다. 고린도전서 10:20 에서 그는 이교도들이 악마에게 제사를 드린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악마가 주변에 있고, 모든 악마가 심연이나 어두운 지하 감옥이나 그런 곳에 갇힌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뭔가 엄청난 짓을 저지르고 영원한 심판을 위해 이런 구금 시설에 갇힌 타락한 천사 무리에 대한 이야기인 듯하고, 예수님이 돼지에게서 쫓아낸 악령들이 이런 일이 자신들에게 일어나기를 원치 않아서 예수님께 자신들을 심연으로 보내지 말라고 부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흥미로운데, 예수님이 악령들을 돼지에게 보내셨는데, 그 다음엔 뭐죠? 그들은 돼지를 죽입니다. 그럼, 그 후에 그들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아마 그들은 돼지를 죽이면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방해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어쩌면 예수가 그들을 심연으로 보냈을지도 몰라요. 누가 알겠어요? 하지만 거기에는 흥미로운 연관성이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그는 홍수를 가져올 때 고대 세계를 아끼지 않았고,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를 불태워 재로 만들어 저주했으며, 롯을 구출했고,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 여기에는 일련의 사건이 있고, 홍수와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데, 이는 우리가 이 천사들이 누구인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유다서에서 더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유다서에서 우리는 권위의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집을 버린 천사들을 어둠 속에 가두어 두셨고, 큰 날의 심판을 위해 영원한 사슬로 묶어 두셨다고 읽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베드로후서에서 읽은 내용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는 그들을 어두운 지하감옥에 보내어 심판을 받게 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을 어둠 속에 두시고, 큰 날의 심판을 위해 사슬로 묶으셨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방식으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변 도시들도 성적 부도덕과 변태에 자신을 내주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했듯이, 이 타락한 천사들은 악마가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주변에 있고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악마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그리스어는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 동성애에 자신을 내주어, 그들의 합당한 자리를 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거기서 teutois 이고, 남성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남자들은, 당신이 원한다면, 그들의 적절한 자리를 버리고, 그들을 부적절한 성적, 성적 경계를 넘어 동성애에 빠지게 했고, 그들은 이런 식으로 행동했습니다. 글쎄요, 이것들은 누구였을까요? 주제, 세 번째 남성 복수형은 타락한 천사들을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음, 소돔과 고모라의 남자들이 성적 경계를 넘어 동성애적 욕망에 빠진 것처럼, 이 타락한 천사들도 그들처럼 경계를 넘어 인간 여성에 대한 욕망에 빠졌다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둘 다 성적으로 관련된 죄입니다. 매우 흥미로운 구절입니다.

경우 중 하나입니다 . 그런 말을 한 후에, 우리의 번역은 정말 훌륭하고,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이 있다고 말해야 합니다. 두 개의 장난감의 선행사에 대한 이 사업을 이해하든 아니든, 구원받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것은 대부분이 매우 명확하게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번역자는 사물을 모호하게 만드는 선택을 합니다.

다행히도, 그것들은 우리의 구원에 필수적인 것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타락한 천사 해석에 반대하는 주장은 어떨까요? 천사와 인간 또는 다른

천사 사이의 결혼을 뒷받침하는 성경적 증거는 없습니다. 글썄요, 우선, 우리는 그 동사가 반드시 결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지만,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예수가 천사에 대해 한 말씀을 언급하며, 예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은 예수에게 이 문제를 제기하는데, 그들은 이 문제가 극복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는 모든 남편과 모든 형제, 실례합니다, 모든 형제가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질문을 던집니다. 글썄요, 그녀는 모든 형제가 있었으니, 부활 때 그녀는 누구의 아내가 될까요? 그들 모두가 그녀를 가졌으니까요. 그들 모두가 그녀와 결혼했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이 성경이나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오류에 빠졌다고 대답하십니다. 부활 때 사람들은 결혼하지도 시집도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늘의 천사와 같을 것입니다. 좋아요, 글썄요, 그냥 멈추고 가렛이 말하는 것을 보지 말고, 여기서 이성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좋아요? 예수님은 하늘의 천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 그들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은 천사의 해석이 맞다면 타락한 천사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타락한 천사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천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거룩한 천사, 천국의 천사에 대해서만 말씀하시고, 그들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실제로 어떤 연관성도 없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6장에 대한 천사의 이해에 대한 반례가 아닙니다. 저는 천사의 해석을 고집하지 않지만,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누군가가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면, 그렇지 않다고 설득당하는 것은 매우 기쁩니다.

저는 그저 증거가 그 방향을 가리킨다고 말하고 있을 뿐이고, 이 경우
예수가 말한 것은 그것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그저 명확하게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썄요, 제 전 동료인 드웨인 개럿이 쓴 책,
천사와 새로운 영성(Angels and the New Spirituality)도 제가 강력히
추천하는 책입니다. 제가 천사와 악마에 관심을 갖게 되었을 때, 그것에
대한 책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책을 읽고, 글썄, 그는 내가 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말했으니, 그 책은 내가 쓸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훌륭하고 정말
좋은 책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 문제에 대해, 간단히 말해서, 창세기 6
장에 대해 말합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은 이것을 천사적 존재가 어떻게든
남성으로서 육체적 형태를 취하고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의미로
받아들였고, 이것이 고대 유대인 해석가들이 모두 받아들인 방식입니다.

영어: 이것은 천사는 결혼하지 않으며 따라서 성별이 없다고 가정한
예수의 가르침과 실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여기서 하는
일은 분명히 불법이며 적절한 위치를 포기하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저는 현대인이 이 해석을 거부하는 진짜 이유는 그들이 그것이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것이 매우 공정한
진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썄요, 이에 반대하는 다른 주장으로는, 글썄요,
왜 하나님은 천사가 한 일 때문에 인간을 벌하셨을까요? 그래서
구약학자이자 고든 콘웰의 전 회장인 월터 카이저는 그의 책인 *Hard Sayings of the Old Testament* 에서, 글썄요, 만약 베나이 엘로힘이
천사였다면 하나님은 땅이 아니라 하늘에 홍수를 일으켰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범인은 위에서 왔습니다. 그 여자들은 아름다워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듯합니다. 글썄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수사적으로 보면 아주
좋은 말이지만, 사실은 그 구절이 하나님께서 홍수를 가져온 이유를
말해주고, 그것은 인간의 사악함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천사적 관점이 이런 종류의 이해를 수반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인간의 죄가 너무 심해져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타락하고 사악한 천사적 존재가 인간의 형상을 취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행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끝에서 일어나는 일과 유사할 수 있습니다. 악이 증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의 용어를 사용하여 강력한 망상을 보내어 진실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런 종류의 세계적 문화적 맥락에서, 그리고 지금은 세계적이거나 그럴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와서 그의 선지자가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사람들이 경외감을 느끼고 그것이 악마의 일이라는 것을 이해할 영적 수단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이 창세기 6장에서 그것의 초기 버전을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완벽하게 타당할 것입니다.

증거는 아니지만 천사에 대한 타락한 천사의 이해가 맞다면 평행이 될 것입니다. 글썄요, 천사에 대한 견해에 반대하는 또 다른 주장을 인용하자면, 칼빈 연구소를 읽어본 적이 있다면 추천하고 싶습니다. 훌륭한 자료입니다. 그의 해설은 매우 훌륭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경우, 그는 천사와 여성의 성관계에 대한 이 고대의 허구는 그 자체의 부조리로 인해 충분히 반박되고, 학식이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는 그렇게 역겹고 엄청난 헛소리에 매료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읽는 것은 재밌지만, 사실, 알다시피, 그것을 너무 진지하게 살펴보면, 잠깐만요, 누군가를 죽음에서 살리거나 누군가를 간질에서 치유하는 것이 그저 기도하는 것만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그것을 믿을 수 있겠어요? 그것도 똑같이 터무니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것이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현대 이성이 신의 행동이나 악령의 행동에 대해 정하는 한계입니다. 그건 그 존재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범위를 정의하려는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건 캘빈입니다. 이걸 마무리하면서 잠깐 언급할 다른 해석은 왕의 해석입니다. 이걸 제가 학생이었을 때 메러디스 클라인이 가르쳐 주었는데, 그때 저는,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왕의 해석은 신의 아들들이 원하는 만큼 많은 여자를 데려간 고대 근동의 왕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확실히 그렇게 했고, 때때로 자신을 신의 후손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집트에서 파라오는 항상 신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는 태양신의 화신이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어떤 왕들은 신의 자식이라고 주장했지만, 다른 왕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고대 근동 비문에 나오는 고대 근동 왕들은 신의 아들 또는 신 으로 불리는 고대 근동 왕들이거나 그들의 집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 따라서 이 용어에 대해 엄격하게 말하면, 그것은 그저 그런 식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한 성경 외적 증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좋은 주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셋족의 해석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셋의 후손이며, 그들은 카인의 혈통에서 딸들과 결혼하는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세의 율법에서 나중에 나타나는 어떤 상황을 다시 읽는 것과 약간 비슷합니다. 모세의 율법에서 그들은 가인족 과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 하지만 성경의 이 시점에서 경건한 남자, 말하자면 셋족이 가인의 딸인 가인족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없습니다.

어쨌든 von Raad가 제안했듯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 사이에는 꽤 의도적인 대조가 있는 듯합니다. 왜 Cain의 딸들이 Cain의 딸들이 아니라 사람의 딸들이라고 불러야 하는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의견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한 천사들이라는 것이었고, 저는 대부분의 증거가 그것을 지적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의 구원은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관점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으로 노아 언약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제프리 니하우스 박사가 성경 신학에 대해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3번째 세션, 타락 이후의 아담 언약입니다.